



소금



러시아 우주 정거장 미르(Mir). 지금은 산산 조각이 난 채 태평양 한 가운데에 폐기되긴 했어도 아직 미르는 우주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우주선이다. 그 미르에서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 우주 비행사들이 방문했을 때 러시아 우주비행사들은 그들에게 암염과 빵 한 덩이를 선물로 주었다던가. 예부터 러시아에서 밀리서 온 귀한 손님에게 주던 선물품속에 따른 것이었다고 들었다.

암염을 선물하는 풍습에는 손님과의 강한 연대감 형성을 위한 기원과 벽사의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의 생각은 동서양이 같은 것인지, 아랍 권에서도 손님과 함께 소금을 먹음으로써 연대감 형성이 된다고 믿었던 것 같다. 이것이 영어권에 가서 '소금을 함께 먹는다.'는 표현이 '식사 손님'이 된다. 라는 이디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처님은 '일미(一味の 법)'으로 바닷물의 동일한 소금 맛에 비유, 평등을 가르치셨다. 소금, 함께하는 식사, 연대감 등 모두가 '일미의 법'과 어딘가에서 맥이 닿아있는 것 같다.

사실 소금만큼 종교적 심성과 깊은 연관을 갖는 식품도 없다. 요즘도 우리 주변 상가 등에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위해 이곳저곳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보게 된다. 소금 뿌리는 것이 어디 한국에서만 일일까. 구미 선진국에서도 왼쪽 어깨에 소금을 살짝 뿌려 소금의 힘으로 악령을 쫓는 풍습이 전해진다.

요즘 그 소금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죽염 등, 소금을 굽거나 인공으로 가공한 '구운 소금'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었다는 것이다.

앞으로 과학적인 검증이 더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많다. 무엇이든 사람의 손을 많이 타면 탈수록 어딘가에서 문제점이 생기며 나빠진다는 점이다.

소금뿐만 아니라 자연을 변형시키는 모든 인공(人工)이다. 그렇고, 부처님 가르침에 무언가 덧칠하는 일도 그럴 것이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재물은 풍과 같은 것이다. 한곳에 있으면 썩어 냄새만 날 뿐이지만 들판에 널리 뿌리면 거름이 되어 초목을 풍성하게 키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돈맛 보며 사는 길이다. <중일야합경>



불자 세상보기



이우상 소설가 대전대 교수

기부와 봉사... 함께 '나눔의 미덕'을

네에 은밀히 기증했다. 이번에는 '나 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공개했다고 한다. 막노동판에서 쓴 떡으로 주된 배를 채우는 등 50여 년 간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입고 그러면서 더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이었다. 그만한 돈이면 아무리 작심하고 방진을 한다고 해도 3대 아니 5대는 너끈히 세습될 수 있다. 그러나 부의 대물림은 자식들에게 독약

라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 깃들었던 영혼 불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또, 허가 타지 않은 것은 진실된 말만 했다는, 부처님의 진리관을 설파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나 하나만이, 내 가족만이 잘 살고 오

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그의 지적이 얼음물을 정수리에 쏟아 붓는 것처럼 정신이 썩는다. 그리고 해서 어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는가. 그의 거룩한 뜻을 받은 자녀들 또한 외경스러운 분들이다.

선배 P와 친구 S가 물려줬던 기억에서 퍼터덕 살아난다. P는 지금 식물인간 상태이다. 야산과 잡초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의 부친이 갑자기

다. 지금은 아내도 없이 반지하 사글세방에서 근근이 숨만 쉬며 살고 있다. 돈부대가, 밀정인 인간을 식물로 만드는데 10년도 안 걸렸다.

친구 S는 빌딩 몇 채를 유산으로 받았다. 그가 내게 내뱉는 탄식은 진실인 것 같다. "야, 정말이다. 내 고인이 된 줄 아냐?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내느냐 바로 이것이 다. 이놈아!" 눈물을 짊끔 짜며 하는

자식들에게 가만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에 뿌리면 거름이 된다는 것도 깨달은 분이다. 물을 건넌다면 뗏목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분이다. 동물은 자신이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한다.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도 배가 부르면 지나가는 먹이를 바라보기만 할 뿐 해치지 않는다.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는 것이 무소유 정신이다.

기부와 봉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아름답게 회향하는 것, 이것은 국가의 몫이다. 간헐적으로 출몰하는 회생보다는 삶의 일부로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와 명예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가운데 형성되는 것이다. 나눔의 미덕이 아랄로 침든 자본주의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다.

지난 19일에는 황필상씨가 200억 상당의 재산을 아주대에 기증했다. 그는 기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세상 사람들의 탐욕에 경종을 울렸다. "재산이나 몸은 내 소유가 아니라 잠시 보관할 뿐이다."

인도 다람살라 탐방기 ①

불교의 세계는 희유하다. 모르면 신통(神通)이고 알면 평상심(平常心)이다. <열반경>에 '일체 중생 모두에게 불성(佛性)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세상 영혼을 가진 모든 생명은 불가사의한 신비의 세계를 체험하고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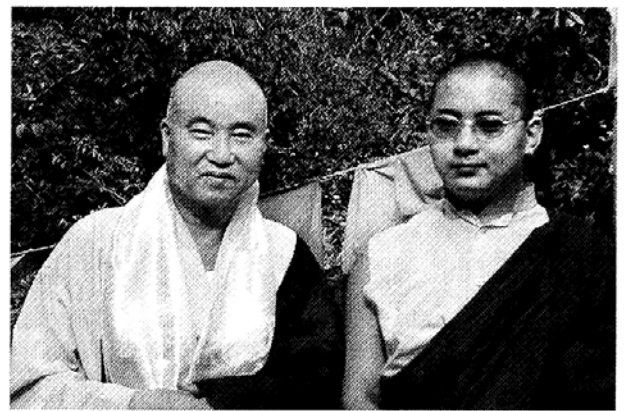
7월 30일, 따시중에 있는 카규파의 캄바까사원 무문관(無門關) 수행도당의 야외 통상에 잠시 모습을 나타내어 친견의 기연(奇緣)이 된 제9세 감를 린포체는 조용하고 단아하며 초롱초롱한 눈을 지니고 있었다.

따시 델레"하고 인사는 했지만 대화는 없었다. 일행도 무언으로 감사드리며 공양을 올렸다. 헤어지는 순간, 감를 린포체는 의자에서 일어나 필자의 손을 꼭 잡고 무언의 인사를 나누고는 손을 흔들며 보이고 숲 속 너머로 모습을 감췄다.

제8세 감를 린포체가 이 무문관에서 열반에 들어 다비했는데, 심장과 허가 타지 않고 사리로 남아있어, 허사리는 법당 안에 탑으로 봉안하고 심장사리는 법당 옆 하얀 탑에 모셨다고 했다. 사리탑 옆에는 한 그루 보리수가 자라고 있어 참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신비에 젖어 들게 했다. 심장과 허가 어떻게 화장을 해도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사리가 되었을까? 모든 생명에 있어서 심장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심장이 박동을 멈추면 죽는다. 우리의 몸에서도 힘차게 뛰고 있는 그 심장이 뜨거운 화염에도

라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한 영혼의 생명이 깃들었던 영혼 불멸을 상징하는 것은 아닐까. 또, 허가 타지 않은 것은 진실된 말만 했다는, 부처님의 진리관을 설파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을까 하고 나름대로 생각해 보았다. 나 하나만이, 내 가족만이 잘 살고 오

다. 그들은 18년간 산문 밖을 나가지 않고 수행차에 따라 나로바 6성취법을 한 단계 한 단계 스승의 점검을 받으며 승급하게 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공(空)을 수련하여 돈오의 경계에 도달하는 수행을 한다고 한다. 이곳에서 수행하는 대중들의 생애는 전생 감를 린포체의 제자인 스 위스인이 공양하고 있다. 감를 린포체는 규정에 의해 금생(今生)의 나이 20세를 지내야 관장법회와 설법을 하고



<법산스님(왼쪽)이 7월30일 카규파의 캄바까 사원에서 제9세 감를 린포체를 만나 기념촬영한 모습.>

많은 시간 수행에 대한 토론을 나누는 등 소중한 만남의 인연이 되었다.

특히 이 사원에서는 무문관 수행법의 전통 외에도 린포의 창시자 파드마 삼바바가 창안한 수행의례의 하나인 '참 덴스'라는 라마들의 무용이 전수되고 있다. 감를 린포체를 모시고 매년 4월에 한박씩 축제가 열려 '참 덴스'를 선보이기도 한다. 또한, 이 사원에는 50명의 어린 라마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시설이라 할 것도 없이 빈약한 공간이지만 그들의 밝은 표정에서 티베트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들에게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구대회를 보았느냐고 물었더니, 잘 안다고 하며 매우 재밌어 하는 표정이었다. 필자는 교실 구석에 있는 물렁물렁해진 공을 보고 새 축구공을 보내주겠다고 약속 했다.

이번 다람살라 탐방이 라마 친견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금생 나이가 17살로, 17번째 환생한 깔마바 린

포체다. 그는 2년 전 티베트에서 넘어와 임시로 겔포카 링 린포체의 규배사원에 머물고 있다. 1시간여 동안 수행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의 두 눈동자에서 비치는 시선은 마치 아침 햇살처럼 맑게 빛났다. 참으로 소중한 선지식의 친견이었다.

이번 다람살라 탐방을 통해 잠시 티베트 불교를 들여다보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 달라이 라마의 소탈한 모습, 깔마바와 감를 린포체에게서 느껴진 천년의 적정(寂靜)과 광명, 엄격한 수행차제와 교화체계, 그리고 고국을 떠난 망명의 설움에도 굴하지 않고 면면히 수행을 이어가는 모습... 앞으로의 수행에 큰 견인차가 되는 기연(奇緣)이 되었다.

짧은 여정이었지만, 신선한 충격을 준 이번 탐방은 내태한 내 자신에 채찍과 초초리가 되었다.

법산 (동국대 정각원장)

심장·허 사리 남기고 환생한 감를 린포체

스님 170명 캄바까사원 무문관 수행 선지식 깔마바 린포체 친견 인상적

래 살겠다며 탐욕에 쫓겨 사기와 질투, 투쟁과 살상을 일삼으며 서로 죽이려고만 하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일깨우기 위한 상징적 방편이 아닐는지. 전신사리로 남겨진 육신보살도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8국 4두의 사리가 나셨다니 종교적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믿으면 반드시 공덕이 되고 정신적 안정으로 영혼이 편안해질 것이다. 이 캄바까 사원에는 170명의 스님들이 무문관에서 정진하고 있다고 한

외부에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9세 감를 린포체도 21세가 된 이번 여름에야 스위스에 가서 전생의 제자들을 만나고 돌아왔다고 한다.

그리고 감를 린포체를 삼생(三生)째 모시며 캄바까 사원에서 수행하는 독법 암인은 처음 만났지만 친숙한 도반처럼 느껴져 세번씩이나 머리를 부딪치기도 했다. 금생의 나이 20세가 되기까지 이 절의 법칙을 지키며 평생 사발 한번 하지 않고 수행하고 있는 독법 암인과는

불자님들이 꼭 읽어야 할 불교 신행의 지침서

불행을 행복으로, 장애를 향상의 기회로, 고난을 해탈의 원동력으로 바꾸어 주는

보왕삼매론 강의

불교신행연구원 원장 김현준 총 신국판 / 240쪽 / 값 5,000원

불자들이 즐겨 독송하는 '보왕삼매론'은 병고해탈, 고난퇴치, 마음공부와 마장극복, 일의 성취, 참사랑의 원리, 인연 다스리기, 궁덕 쌓는 법, 이익과 부귀, 억울함의 승화 등 누구나 인생살이에서 겪게 되는 장애들을 속 시원하게 뚫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자는 삶의 장애 요인들을 원리에 입각하여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불행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절한 일화들을 많이 삽입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감동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엮었습니다.

이제 『보왕삼매론 강의』를 통하여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지혜를 터득하시고, 복덕과 향상의 길로 한발 한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1 장 : 병고를 양약으로 삼아 7 장 : 인간관계 속의 수행
2 장 : 고난은 해탈의 원동력 8 장 : 베풀되 보답을 바라함이 없이
3 장 : 마음공부와 장애 9 장 : 참된 자기 이익의 길
4 장 : 수행인의 서원과 마(魔) 10 장 : 억울함을 향상의 기회로
5 장 : 일은 업 따라 이롭다 11 장 : 막힌 데서 통한다
6 장 : 서로를 살리는 정을 나누며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꼭 새겨야 할 마음가짐과 가르침을 재미있고 감동적으로 엮은 오분향 예불문의 해설서. 불자들이 궁금해 하던 수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을 모두 답했습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저작상) 수상작.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법당, 사물(事物), 석등, 탑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변천 등을 깊이 있게 다루어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김현준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속바라길 수행법

특별한 수행자만이 아니라 일체 중생 모두의 성불을 보장하는 속바라길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여섯 가지 바라밀에 대해 그 정신과 실천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도 재미있게 서술하였습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중생의 모든 고통을 없애 행복을 안겨 주는 관세음보살! 이 책은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관음기도법, 관음관법 등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관음신앙의 길잡이요, 관세음보살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바라는 분들의 필독서입니다.

김현준 지음 / 4x6판 / 값 3,500원

천수경 천수신앙

불자라면 누구나 독송하는 천수경에 대한 감성적, 경이 숨겨져 있는 참뜻. '천수경'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존재전인, 여러 심대발원문까지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알기 쉽게 풀이하였습니다.

혜국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시작이는 마음

보조국사의 《초심》을 일타 큰스님의 자상한 법문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 누구나 쉽게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7,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경》을 일타 큰스님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해설해 놓았다. 이 책을 읽다보면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자경문(自警文)》은 야운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 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견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다.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듯한 말솜으로 빛을 띄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6,000원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하는가? 신행에 있어서 신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우문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불자의 마음기쁨과 수행법

일타큰스님의 마지막 법문집. 불자의 근본 마음가짐에서부터 불교의 4대수행법인 참선·예불·간경·주력에 대해 자세히 설하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부드러운 말만머리 미묘한 양이머리

일타큰스님의 대표법문집. 고된 삶 속에서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맑고 주옥 같은 법문으로 행복의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윤리와 인과응보 이야기

과연 인간은 윤리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 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읽다보면 윤리와 인과응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